

녹 취 록



제이엘속기사무소

JL shorthand office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1층 130호
T) 02-2138-3660 M) 010-4569-3660 E) jlsokgi@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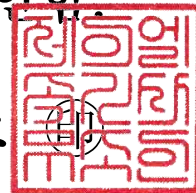
녹취록

녹음일시	2023년 6월 5일 11시 39분 21초
녹음장소	통화 녹음
녹음분량	48분 40초
대 화 자	강지영, 김영삼
번 문 일	2023년 6월 15일
註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 음성언어의 인식 및 기록이 불가능한 부분임.- 녹음일시, 녹음장소, 고유명사 및 대화자 정보는 의뢰인의 증언내용임.- 이해력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일부 사투리, 어순 정리 등은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함- 본 문서는 속기사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이 기록은 녹음된 음성언어와 상위 없음을 확인함.

제 이 엘 속 기 사 무 소

속 기 사 김 진 영





1. 파 일 : 김영삼_01033364833_20230605113921

녹음일시 : 2023년 6월 5일 11시 39분 21초

녹음분량 : 48분 40초

녹음장소 : 통화 녹음

대 화 자 : 강지영, 김영삼

김영삼 : 여보세요?

강지영 : 네. 지금 방금 가가지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김영삼 : 여보세요?

강지영 : 네. 방금 가가지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김영삼 : 여보세요?

강지영 : 말씀하시라고요.

김영삼 : 그 지금 남았는 거 이쁘게 못 하니께네 이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불러서 해라고 그랬지.

강지영 : 돈 주세요, 그러면. 반환하세요.

김영삼 : 돈 내가 지금 들어 갖는 게 지금 850만 원 들어갔어, 지금.

강지영 : 850만 원까지 들어갈 그것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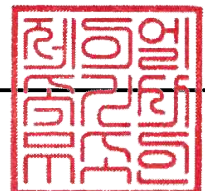
김영삼 : 내가, 내가 이거 내역서 지금 **

강지영 : 얼마나 여기 왔다고. 그리고 제가 저도 가격대를 알아봤는데, 그만큼 뭐 들어갈 그거 없습니다. 무슨 850만 원은 850만 원이에요.

김영삼 :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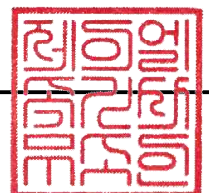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강지영 : 뽕튀기를 지금 너무 심하고 그리고 공사도 지금 지체가 얼마나 됐으며 처음부터 하기로 해놓고서는 마음대로 다해놓고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김영삼 : 그렇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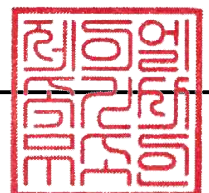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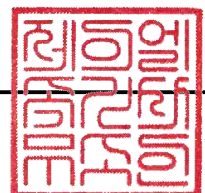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강지영 : 그렇게네가 아니고. 공사를 일단 마무리 짓게 해가지고.
김영삼 : ** 야 말 **
강지영 : 벌써 900만 원 벌써 얘기했잖아요. 뭐하자는 거야, 지금.
김영삼 : 그러니까 니 좋은거 다하고 할라카면..
강지영 : 됐고. 지금 다 **
김영삼 : 말 그렇게 할래?
강지영 : 누가 지금 말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네?
김영삼 : 지금 말 그따구로 하지 마라. 그따구로 **
강지영 : 네? 지금 장난해요? 지금?
김영삼 : 장난하나, 지금.
강지영 : 공사가 지금 장난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4월 27일날 돈을 붙였고 5월달 부처님 오신날 전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김영삼 : 그래, 이제..
강지영 : 정도껏 해라, 정도껏!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잘하면 니가 다하면 되잖아..
강지영 : 누가 그렇게 하루하루 왔다 가고 그렇게 공사해.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잘하면 니가 다하면 되잖아.
강지영 : 니가 **
김영삼 : 어?
강지영 : 어디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공사를! 뭘 잘했다고 지금!
김영삼 : 니가..
강지영 :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돼요? 네?
김영삼 : 그러니까 마무리하라고.
강지영 : 마무리를 하라고! 이씨.. 다 똑바로 해놔! 필요 없으니까. 똑바로 하라고 전부 다!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강지영 :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도! 뭐하는 거야 지금! 법적? 누가 지금! 어?
김영삼 : 그러니까 니 마음..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강지영 : 다 필요없고 지랄하지 말고!
김영삼 : 니 말 그렇게 하지 마라.
강지영 : 니고 말고 누가 지금 말을 그래했는데 먼저! 어? 와 가지고 법적? 뭐? 기분 나빠서 못 해. 누가 지금 기분 나빠! 지금 며칠째야!
김영삼 : 야. 야. 내가 니 아시동생이냐?
강지영 : 아시동생?
김영삼 : 말 그따구로 해. 내가 시동생이야?
강지영 : 아시동생이면.. 차라리 낫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공사 저따위로 해놓고 돈 받아먹고 어? 지금 뭐하자는 거야! 언제 공사 끝나야 돼요! 지금! 내가 좋게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 네?
김영삼 : 내가 자 **
강지영 :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김영삼 : 그래 어쩔 건데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
강지영 : 그리고 똑따 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필요없으니까.
김영삼 : 니가 돈 내놔라. 지금 한 거 더 들어갔다. 돈 내놔라.
강지영 : 아저씨 헛소리 하지 말고 돈 붙이세요.
김영삼 : **
강지영 : 공사를 마무리 짓는 데까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김영삼 :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니가 마무리 지으라고.
강지영 : 마무리 짓고 아니고 아니지. 다해가지고니까 포함이니까!
김영삼 : 그러니까..
강지영 : 녹음해놓은 거 다 있다고.
김영삼 : 그래 있으니까 **/0304/
강지영 : 당신이랑 녹음해놓은 거 다 있다고,



김영삼 : 그러니까,
강지영 : 다 해가지고 900이라는 말을 했다고. 지금 뭐하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김영삼 : 그러니까 그래. 900이었으면 뭐.
강지영 : 똑바로 해놓으란 말이야!
김영삼 : 아니, 됐어!
강지영 : 아직까지 공사 안 했잖아! 안 끝났잖아! 끝냈어?
김영삼 : 그래, 나.. 나는.. 니 있잖아.
강지영 : 끝내고 내서 지금 얘기하냐? 내가 통보했어? 지금? 끝내고?
김영삼 : 나는.. 그래 어찌라고.
강지영 : 지체상환금 내라고 그러면!
김영삼 : 아니, 그러면 뭐 법대로 해라, 그래. 그런 거 같으면..
강지영 :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김영삼 : 그래. 법대로 해라 그러다며..
강지영 : 똑바로 해놓으라고 원래부터 해놓으라고 필요 없으니까.
김영삼 : 야 똑바로..
강지영 : 디자인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없으니까 똑바로 해놓으라고 내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상의를 했어. 우리한테 상의하고 했어?
김영삼 : 우야노. /0341/
강지영 : 공사하는 사람 마음이지. 그런 식으로 누가 뭐라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했던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마무리를.. 니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지으라고.
강지영 : 됐고! 똑바로 해놓으라고 필요없으니까! 다 니가 한 거 다 가져가! 필요없어!
김영삼 : 아니, 뭐 가져가라 하면 **
강지영 : 다 가져가! 니 알아서 해!
김영삼 : 법으로 해라, 그러면.
강지영 : 니 알아서 하라고!



김영삼 : 그래. **

강지영 : 그거는. 말을 어디서 그만 식으로 하고 지랄이야! 참다참다 카니까 누가 들으면 니가 아시동생?

김영삼 : 너 말조심해라.

강지영 : 야, 아시동생?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해! 와가지고 뭐? 먼저 사과가 먼저 아니야? 어? 늦어졌으면 미안하다가 먼저 아니야?

김영삼 : 사과..

강지영 : 위고 아래를 떠나서 돈을 주고 했어. 그러면 늦어졌으면 언제 늦어졌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도 없어. 뭐하자는 거야? 지금!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강지영 : 먼저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김영삼 : 그러니까 먼저,

강지영 : 처음부터 그러면 나 이렇게 못 한다하지 그러면!

김영삼 : 그래. 지금이라도 한 게 천만다행이네.

강지영 : 지금 아니지! 지금은 벌써 했잖아. 그러니까 뜯어가라니까. 필요 없으니까.

김영삼 : 니 뜯어갈라면 니가 뜯어라! 뜯으려면 돈 내라.

강지영 : 내가 왜 뜯어 그거를!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공사를? 내가 왜 뜯어 그거를!

김영삼 : 그러니까 **

강지영 : 마음대로 했잖아. 뜯어! 가! 가지고 가서 팔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빨리 돈이 나 내놔. 필요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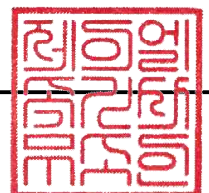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김영삼 : 그러니까 법으로 하라고.

강지영 : 법이고 지랄이고 빨리 해! 필요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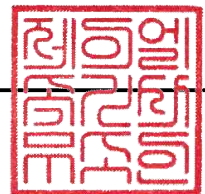
김영삼 : 나도 필요없다. 니 알아서 해라.

강지영 : 니가 안하무인이니까 나도 안하무인처럼 나가는 거야.

김영삼 : ** 내가 **



강지영 :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누가 지금 안하무인으로 나와.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안하무인이지 야야..
강지영 : ** 누가 지금 안하무인인데!
김영삼 : 니가.
강지영 : 공사 지금 4월 27일이야. 돈 붙인 지가!
김영삼 : 그래. 니가 그러니까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리모델링 하라고 하면 되잖아.
강지영 : 모델이고 뭐고 빨리 필요없으니까 다 보내라고.
김영삼 : 니가 원하는 거 **
강지영 : 보내고 뜯어가라고.
김영삼 : 미쳤나 내가.
강지영 : 그럼 공사를 시작하지 말지 원하는 대로 못 맞출 거면.
김영삼 : 그렇게,
강지영 : 공사하는 사람한테 맞춰야 주지. 뭘 헛소리야.
김영삼 : 그렇게 내가 **/0541/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강지영 : 지금 누가 누구를 만만하게 보는데요? 네?
김영삼 : 그렇게 만만해보이나 내가?
강지영 : 누가 먼저 지금 누가 지금 이따위로 일을 해놓고서,
김영삼 : 나는,
강지영 : 누가 누구를 지금 만만하게 보는데? 어? 공사날짜 다 어겨놓고서 하루 왔다가 뭐 5일씩 안 오고 올 생각도 안 해. 무슨 공사가 이런 공사 나 지금 처음이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내가 원래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는 공사도 나는 처음이야.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틀어졌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거는 어떻게 할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공사야.
김영삼 : 그래.
강지영 :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배짱 텅기면서 뭐 돈 못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거는 아니지.

김영삼 : 돈은 내가 받아야지. 너는 돈 못 주고, 너는 돈 줄래? 지금 나한테?

강지영 : 뭘 소리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김영삼 : **/0627/

강지영 : 거기 무슨 그 850만 원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 어디 그렇게 자재가 그만큼 들어갔는데 도대체가.

김영삼 : 내가 뽑아줄게.

강지영 : 필요 없다. 그거 또 뺨튀기 해가지고 했는지 누가 아노.

김영삼 : 어디 가서 물어봐라.

강지영 : 안 믿어요.

김영삼 : **

강지영 : 지금 공사한 거 보고 누가 어떻게 믿어? 안 믿어, 나는.

김영삼 : 그러면 뭐 법으로 해봐라. **

강지영 : 지금 공사 이따위로 해놓고서 뭘 믿어? 믿기는.

김영삼 : 저기.. 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있잖아. 이거는 들어간 거를 안 들어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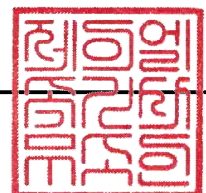
강지영 : 됐고 얼마 썼는지 뭐 얼마 썼는지 나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공사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미뤄졌고 하면 미안한 게 사람이 인지상정이 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언제 하겠다는 말도 없이 무슨 뭐 이거 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아무리 아는 사람이고 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누가 먼저 안하무인처럼 나왔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가지고.

김영삼 : 안하무인은 니가 안하무인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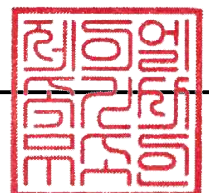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강지영 : 아니지. 공사일정이든 뭐든 얘기 없었잖아.

김영삼 : 그러니까 마무리를 갖다가 **

강지영 :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이랬냐고, 누가.



- 김영삼 : 나는 나는 니 스타일 못 맞추니까 스타일 맞는 거 있잖아. 골라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돼.
- 강지영 : 그러니까 스타일 못 맞출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지, 그럼 왜 했어.
- 김영삼 :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맞추겠다, 이제.
- 강지영 : 이제 와서 못 맞춘다 하면 안 되지. 그럼 뜯어가 갖고 돈을 내놓든지.
- 김영삼 : 그러니까, 뜯어가면 뜯은 비용도 같이 내라, 그러면.
- 강지영 :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했나? 내 마음대로 했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했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뭘.
- 김영삼 : **
- 강지영 :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 내가 왜내노 그거를. 뜯어가세요. 알아서 그 디자인에 맞는 사람 뭐 팔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 김영삼 : 나는, 나는 그래 못 해 주겠다.
- 강지영 : 모르겠어요, 나는 그 부분은.
- 김영삼 : 나는 한마디로 내가, 내가 한마디로 나는 못 해주겠다.
- 강지영 : 나는 내가 원래부터 했던 건 아니었고.
- 김영삼 : 그따구로 이야기하지 마라. 한마디로 나는 못 해 주겠다.
- 강지영 : 누구, 누구한테 지금 그따위예요. 공사일정을 누가 늦췄는데. 지금 언제부터 하기로 했고 **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 김영삼 : 아니, 공사를 그따위로 했다며 그따위로 했으니까네. 그따위밖에 할 줄 모르니까네. 잘하는 사람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
- 강지영 : 그러니까 돈 붙이라고 내가 잘하는 사람 알아서 할 테니까.
- 김영삼 : 아니, 내 돈드간 거는 **/0840/
- 강지영 : 모르겠고 내가 붙인 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 김영삼 :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강지영 : 내가 원하는 거 한 개도 없으니까 붙이시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김영삼 : 나도 모르겠고. 나는 모르면서 내가 어예 아노.

강지영 : 아니지.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김영삼 : 나는 모르면 나도 모르지. 우예 아노.

강지영 : 아니지. 그래 말하면 안 되지.

김영삼 : 니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도 모르는데 내가 우예 아노.

강지영 : 아니지. 누가 지금 먼저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가서 뭐라했어요? 그러면? 네? 뭐 협박해요? 지금?

김영삼 : 협박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강지영 : 엄마한테 가서 무슨 뭘 지금 협박하냐고 지금.

김영삼 : 아니, 그러니까 **/0909/

강지영 : 어디 가서. 어? 뭐라카노, 지금.

김영삼 : ** 다른 업체로 한다매. 그럼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강지영 : 그러니까 빨리 돈 달라고 붙이라고 그러니까 뜯어가고 필요 없으니까.

김영삼 : 아니, 그러니까 돈 받으려면 소송해라. 안카드나 그래.

강지영 : 필요 없으니까 통장으로 돈 붙인 내역 있어, 붙여 빨리.

김영삼 : 그래. 소송하라니까. 고발하든지. 하면 되잖아.

강지영 : 고발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돈 붙이라니까.

김영삼 : 그래.

강지영 : 돈 붙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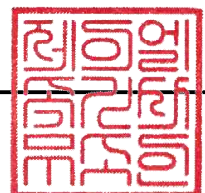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김영삼 : 못 붙여준다니까.

강지영 : 왜 못 붙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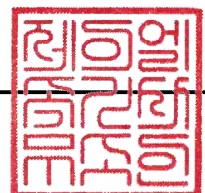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김영삼 : 내가 왜 붙이는데. 나는 돈 받을 거 있는데.

강지영 :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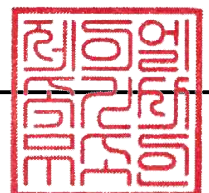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김영삼 : 그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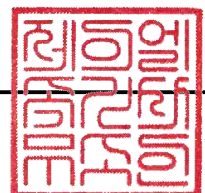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 강지영 : 필요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가져가. 집에 가져가든 뭘하든 가져가라니까 필요 없으니까 850만 원짜리 들었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알바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 근데 내가 돈을 왜 줘야 되는데.
- 김영삼 : 그러니까.
- 강지영 :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는데 내가 왜 돈을 지불을 하냐고.
- 김영삼 : 나는 남의 집에다가.. 뭐 지어놓고 내가 돈을 왜 주는데.
- 강지영 : 아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 내가,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내가 돈을 붙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 아무것도. 근데 내가 왜 당신한테 또 돈을 줘야 되냐고.
- 김영삼 :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고.
- 강지영 : 아,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돈 달라고.
- 김영삼 : 그거는 못 주겠는데.
- 강지영 : 왜 못 주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 김영삼 : 내가, 니도 못 주잖아.
- 강지영 :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아닌데.
- 김영삼 : 나는 니 원하는 대로.. 나는 내 들은 것만 받으면 돼. 맞잖아.
- 강지영 : ** 나도 말을 못 하겠다. 지금. 언제 끝내기로 한 공사고 안에 그것만 했으면 벌써 750이 끝났어. 뭘 소리하는 거야, 지금.
- 김영삼 : 아이고. 그래 750에 끝내주는 사람한테 하지 와. **/1040/
- 강지영 :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지. 은숙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 김영삼 : 웃기지 말고, 웃기지 말고.
- 강지영 : 나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750인지 알아. 내가 지금 견적 내줄까요?
- 김영삼 : 얼른 내줘라./1053/ 내줘라.
- 강지영 :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놓으라고 필요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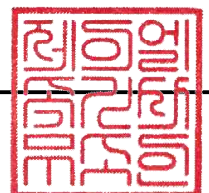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김영삼 : 나도 필요 없고 돈 못 주고 니가 다부로,
강지영 : 무슨 850만 원이야 850만 원은.
김영삼 : 내가 내역서 줄게.
강지영 : (한숨)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 내가 왜 돈을 줘야..
김영삼 : 내가 **/1106/
강지영 :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야지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야. 모든 물건은 그런 거야.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사고 싶고 해야 돈을 지불하는 거라고.
김영삼 : 그러니까 니 원하는 대로,
강지영 :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뜯어가라고 당신 마음대로 뜯어가라니까.
김영삼 : 마무리를 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
강지영 : 내가 마무리 필요 없다니까.
김영삼 : 어찌라고. 나는..
강지영 : 돈 주라고. 필요 없으니까 돈 달라고.
김영삼 : 니가 거꾸로 250만 원 붙여라.
강지영 : 나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김영삼 : 니가, 니가 안에..
강지영 : 나는 못 줘.
김영삼 : 니가 안에 다 골랐잖아.
강지영 :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나는 그냥 이거로 끝내라고 했어. 근데 계속 이게 공사를 안 해. 뭐 시간 남을 때 와서 하는 데야? 여기가?
김영삼 : 비에, 비가 오고,
강지영 : 비가 오는 건 일주일밖에 안 됐고.
김영삼 : 중간에 ** 비가 오고 그랬잖아. /1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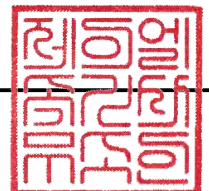
- 강지영 : 됐고. 이틀밖에 안 돼. 비오는 날짜는 내가 더.. 그 다 알아. 뭔소리하는 거예요? 네?
- 김영삼 : 그래. 비오고. **/1206/
- 강지영 : 27일 돈 줬다니까 4월 27일날.
- 김영삼 : 그래. 돈 붙여가 우리 공사 언제 들어갔는데 시기 **
- 강지영 : 내가 분명히 초파일 안에 끝내달라고 얘기했고 뭐라했어요. 10일 안에 다 해결된다 그랬지. 내가 판 데도 알아봤어. 10일 안에 다 된다 그랬어. 지금 며칠 지났어요.
- 김영삼 : 그래. **/1229/ 판넬로 주려고 하다가 판넬로 주려고 하다가 판넬로 안 하고 다시 이제 이게 또 바뀌었잖아. 판넬 했으면 벌써 끝날 수도 있겠지.
- 강지영 : 그러니까 내가 바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 지어달라고 했고.
- 김영삼 : 그래. 새로 지으면 더 편하지.
- 강지영 : 새로 짓는 조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새로 지어달라 했잖아.
- 김영삼 : 그점에 내가 백번.. 다했고.
- 강지영 : 그러니까 아니, 내가 벽돌 해 달라고 그랬어요?
- 김영삼 : 지나간 거 진짜 지나간 거 자꾸 되새겨 가지고.
- 강지영 : 아니, 지나간 거 아니, 지나간 게 아니고 내가 발주를 낼 때 벽돌로 해달랬냐고.
- 김영삼 : **
- 강지영 :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새로 지어달라고. 처음부터.
- 김영삼 : 그래가 그래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 강지영 : 맞잖아요.
- 김영삼 :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 강지영 :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
- 김영삼 : 그래서 어떻게..



- 강지영 : 내가 처음부터, 내가 그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너무 좁고 화장실도 너무 좁고 안에 벽돌이고 됐고 나는 바깥에 그거 해 달라고 새로 지어달라고 나는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 김영삼 : 그래가,
- 강지영 : 근데 뭐 안된다카면서 안 되기는 왜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계속 안 된다. 이미 그리고 그렇게 벌써 만들어놨어.
- 김영삼 : 그래가 안에 화장실도 자, 안쪽에 한 칸 하고 한쪽에 창고 쓰는 거 **/1348/ 그거 본인이 결정한 거지. 맞제?
- 강지영 : 창고 쓸 거냐 했을 때 나는 분명 얘기했어요. 다 새로 짓는 조건으로 얘기한 거라고 그것도, 처음부터.
- 김영삼 : 그래가,
- 강지영 : 누가 벽돌 쌓는 거 누가 내가 벽돌 쌓는 거 원했어요? 나는 빨간벽돌 보기 싫어. 나는 빨간벽돌 싫어요. 내한테 벽돌도 물어봤어?
- 김영삼 : 벽돌 안 쌓고 그러면 뭘로 하는데?
- 강지영 : 아니, 그러니까 내한테 얘기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 빨간벽돌 싫다니까.
- 김영삼 : 그러니까 취향에 맞는 거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
- 강지영 :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놨잖아, 지금. 그래야 내가 이것저것 그래. 다 넘어갔어. 근데 지금 기한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도 와블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대로 그냥 놔두고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바쁘시면 본인 사업 하세요.
- 김영삼 : 그래 하고 있잖아. 그래.
- 강지영 :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서 여기를 왜 이딴 식으로 하는데 지금 날 짜가 얼마나 지났는데.
- 김영삼 : 그러니까, 그러니까..
- 강지영 : 먼저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김영삼 : 원하는 대로 해서 나도 원하는 대로 마저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
강지영 :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으니까 돈 달라고. 다시 원상복구 해놓고.
김영삼 : 그거는 못 하지.
강지영 : 그거를 왜 못 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처음에 내가 발주했는 것도 아닌데,
김영삼 : 내가 돈 들어간 거는 뭐,
강지영 : 그거는 본인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김영삼 : 그러니까 나도 뭐 본인 마음대로 **/1511/
강지영 :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했잖아. 내가 원했어요?
김영삼 : 본인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라고.
강지영 :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했으니까 본인 마음대로 한 건물을 뜯어가라는 거야.
김영삼 : 돈을 뜯어낼 비용을 줘야지.
강지영 : 처음부터 내하고, 그렇게 한 비용도 누가 그렇게 하래?
김영삼 : 그거는 ** 아니잖아.
강지영 : 하래? 누가 그래 하라 안 했잖아. 처음에 했던 조건하고 완전 다르잖아. 본인이 마음대로 지었잖아. 그럼 본인이 알아서 뜯어가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주넌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김영삼 : 그리고 나는..
강지영 : 그렇게 든 거 내한테 얘기할 필요 없지. 마음대로 했잖아.
김영삼 : 창고 창고.. 두 칸 만들어달라고 해서 두 칸 만들어줬고.
강지영 : 아니지. 나 새로 지어달라줬잖아.
김영삼 : 그래 뭐 그 뒤로는 하여튼 뭐 나는 두 칸씩 해 달라고 두 칸 만들어줬고.
강지영 :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김영삼 : 나는 뭐 하여튼 지어달라캐서 8노력했어. 그래서 나는 두 칸으로 해가 창고 **
강지영 : 나는 아니죠. 나는 벽돌도 얘기한 적 없고 빨간벽돌은 더더욱 원하는 적도 없고 처음부터 나는 새로 지어달라고 했고 두 칸에 그냥 지어달라고 했고 남너로



지어달라고 그랬고 새로 짓자, 지어달라고 그랬지.

김영삼 : 뭐 짓는 거는..

강지영 : 누가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그냥 벽돌 발라갖고 그렇게 처리할 줄도 몰랐고.

김영삼 : (한숨) 뭐 들이 써부러왔자 이거 뭐 답도 안 나오고 그냥 그 마무리 잘 지어라
잘 짓고 그거 뭐 자꾸 **/1627/

강지영 : 마무리를 잘 지어라,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죠, 이거는.

김영삼 : 그러면 뭐라캐야 되노.

강지영 : 뜯어가라니까요. 나 다 마음에 안 든다니깐요.

김영삼 : 아니, 그거는 니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뜯는 거는 **

강지영 : 아니, 그거를..

김영삼 : **/1641/ 내가 있잖아. 내가..

강지영 : 내가, 돈도 600만쯤의 그 가치 나는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한 개도 없고 그 안에서, 지금.

김영삼 : 그러니까 그거 뭐 알아서 하라고 뭐 뜯든지 오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는,

강지영 : 그거는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뜯어가세요. 그냥 그
거 건물 필요한 사람한테 주세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사고 팔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집에서 그거를 떠가지고 가든 뜯어가든 뜯어가세요.

김영삼 : 그래. 그러니까 나는,

강지영 : 본인이 돈이 들었으니까 그 돈은 본인이 알아서 팔고 내가, 내가 원하는..

김영삼 : 뜯으라카면 돈 들잖아. **/1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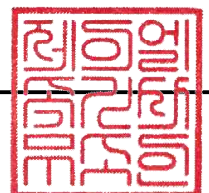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강지영 :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

김영삼 :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말이 틀리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니 그냥. 나는 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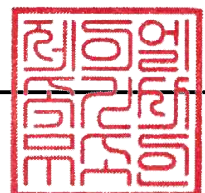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강지영 : 알아서 해라 그래 말을 하면 안 되지.

김영삼 : 그래. 나는 그럼 나는.. 나는 뭐 알아서 하라며, 니 본인 마음이고. 나는 니 마
음대로 하는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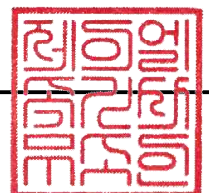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강지영 : 그거는 아니지. 아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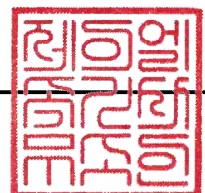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 김영삼 : 나도 내 마음이다.
- 강지영 : 나는 내가 발주를 냈는 입장이고 돈을 받은 입장이잖아요. 돈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 김영삼 : 그래. 돈..
- 강지영 :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개도 한 게 없잖아.
- 김영삼 : 니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
- 강지영 : 그랬는데 뭘.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고 본인이 원했던 것대로 했으니까 그거는 가져가라니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원해야지 내가 내 돈 주고 사지 공사라는 게,
- 김영삼 : 물건이 아니잖아.
- 강지영 : 내가. 원하는 게 대로 해 줘야되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대로 해놔놓고 내한테 돈 내라카면서 이카면 누가 그거를 어 그래 내가 돈 낼게.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 김영삼 : 그래. 원하는 사람 하라고 그러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잖아.
- 강지영 :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니고 지금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가져가라니까요. 그거 마음에 드는 사람 뭐 공사를 떠가든지 뭐 포크레인 떠가든지 나는 모르겠고 가져가시라고 철거를 하는 비용도 본인이 해야지. 내 마음에 들 것도 아니니까 내가 사는 물건이 아니니까.
- 김영삼 :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말이 안 돼, 니하고 내하고 말이 안 되잖아. 니가 알아서 해라. 뭐 법으로 하든지.
- 강지영 :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지. 법으로 하라고 말고가 없어.
- 김영삼 : 니하고 내하고 이야기 끝난 거 아니가?
- 강지영 : 아니죠.
- 김영삼 : 자꾸 이야기해봤자, 뭐.
- 강지영 :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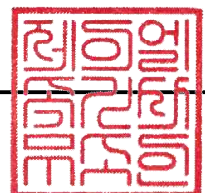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김영삼 : 자꾸 이야기 해봤자 내가 설명해봤자 **/1829/ 나는 못 쥐.
강지영 : 아니죠. 빨리 돈이나 내놓으세요. 빨리.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김영삼 : 돈 줄 마음도 없고 철거할 마음도 없다.
강지영 : 빨리 주세요.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철거하고 싶으면 돈을 갖다가 더 넣어라. 그러면 철거해 줄게.
강지영 : 아니, 나는 필요없고 그 건물 팔도 보기 싫으니까 그거 철도 그렇고.
김영삼 : 그러니까.. 철거하고 싶으면 돈을 여라. 입금시키면 해 줄게.
강지영 : 엄청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그따위로 해놓고서 무슨 그리고 ** 안 짓고 뭐 장난하나 진짜? 지금 시간..
김영삼 : 마무리를 니가 **/1855/
강지영 : 시간 지체를 지금 얼마나 했는데, 지금.
김영삼 : 그래. 시간 지체했고 니 마음에 드는 대로 해라. 안카나 인자.
강지영 : 시간 지체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설명할 거예요. 네?
김영삼 : 그래. 시간 지체해가지고.
강지영 : 공사해봤으니까 알죠?
김영삼 : 공사 지체상환금 뭐 계약기간 있나?
강지영 : 지금 계약기간 없죠. 근데 얘기한 부분에 다 있어, 그게.
김영삼 : 그러니까네.
강지영 : 그러니까.
김영삼 : 그러니까 그거.. 그런 조항이 있나, 니가? **
강지영 :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있지. 말로도 요즘에 구두로 다 되니까.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나중에 ** 중간에..
강지영 : 효력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니까요.
김영삼 : 나는 못 가져간다. 가져갈라카면,
강지영 : 가져가세요.
김영삼 : 가져갈 거면 돈 내라. 그러면 가져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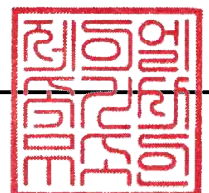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강지영 : 가져가세요. 철거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으니까,
김영삼 : ** 나도, 나도 이제 범대로 할 거야.
강지영 : 뭐라고요?
김영삼 : 나도 이제 더 봉사 안 해 즐란다. 봉사하기 싫고.
강지영 : 봉사요? 누가.. 몇 번 했다고 봉사라? 내가 들어간 물값이 더 많은 것 같네.
김영삼 : 그래. 뭐 개똥만도 못 하다 이말이네.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니까.
강지영 : 무슨 봉사는 무슨 와~ 뭐 900만 원짜리 봉사도 있나?
김영삼 : (헛웃음) 아니, 참 아니, **
강지영 :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750이면 그렇게 벽돌 쌓고 할 것 같았으면 그 사람한테, 내 앞전에 넣었는 사람한테 넣었으면 750이면 다 된다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놓고.
김영삼 :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재 들어가는 거..
강지영 : 아니, 그 사람 불렀는데 지금 600이 들어갔잖아.
김영삼 : 불러서 해라. 불러가 하고.
강지영 : 부른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놓으라면 빨리 내놓고. 그냥 여기서 서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진짜로. 네?
김영삼 : 그거는 니가 있잖아. 니 내를 잘 몰라서 그렇지. 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강지영 : 보통 저도.. 아니지.
김영삼 : 사람이 있잖아.
강지영 : 누가 먼저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헐박도 아니고 누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 요?
김영삼 : 누가 헐박을 했대? 아니, 다른 사람 하라고.
강지영 : 뭐? 공사를 하면.. 다른 사람하면 뭐? 신고한다. 지금 장난해요? 누가 먼저 말을 그렇게 했어요.
김영삼 : 잘해 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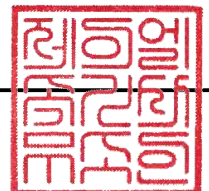
강지영 : 네? 누가 말을 먼저 그랬냐고.
김영삼 : **/2056/
강지영 : 협박해? 지금 엄마한테?
김영삼 : 해라했잖아.
강지영 : 뭘 하라캐? 뭘 하라캐?
김영삼 : 내가. 마무리 공사 내가 하라했잖아.
강지영 : 아니, 아니, 해라, 마라가 아니고 엄마한테 누가 먼저 그래 얘기했자고. 경우
없이.
김영삼 : 너는 경우가 있고 나는 경우가 없고 그러냐? **/2110/
강지영 : 먼저 경우 없었잖아요. 지금.
김영삼 : 니가 그 엄마를 먼저 내한테.
강지영 : 공사도.. 늦어졌는데다가 지금 미안하다 말도 없고 오면 뭘 해 달라고 그러면
승질부터 내고 그거 잘한 거예요?
김영삼 : 이제는 니하고 할 말이 말도 섞기 싫다야.
강지영 : 나도 말 섞기 싫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김영삼 : 말 섞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
강지영 : 빨리 돈 붙이고 그냥 끝냅시다. 가져가세요.
김영삼 : 니가 돈 붙여라 내가 니한테 청구서 **/2136/
강지영 : 가져가세요..
김영삼 : 내가 니한테 청구서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강지영 : 가져가시라고.
김영삼 : 그때 니도 있잖아. 답변이나 해라, 답변이나 해라.
강지영 : 무슨 답.
김영삼 :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나 하라고.
강지영 : 무슨 답. 무슨 답.
김영삼 : 내가 **/2150/ 청구서 있잖아.



강지영 : 무슨 청구서.
김영삼 : 뭘 청구서는 **
강지영 : 내가 원하는 것도 안 했는데 무슨 청구서.
김영삼 : 아니, 어쨌든 그거 있잖아. 법정에서 이야기해라.
강지영 : 아휴 됐고 법정, 그럼 법정에 넣든지 말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그거 가져
가시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라고.
김영삼 : 아유 누가 **/2210/
강지영 :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는데, 뭘 청구를 하는데 도대체가.
김영삼 : 그러니까.
강지영 : 아니, 뭘 청구를 하는데 참내.
김영삼 : **/2215/ 보면 알지.
강지영 :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있냐고.
김영삼 :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러하라고 나머지를,
강지영 : 아니,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든지 말든지 그거 뭘 내한테 청구하냐고 지금.
김영삼 : 돈 들어간 거 청구할 거 아이가, 내가.
강지영 : 뭘 돈이 들어갔는데요. 내가 돈 줬잖아.
김영삼 : **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청구 내역서를,
강지영 : 나는 **/2232/ 내가 받아야 될 돈이야,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안 했는데
무슨 청구를 하노, 도대체. 청구해봐, 한번. 나도 직접 한번 가서 한번 보게.
김영삼 :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강지영 : 그래. 해. 해해해해.
김영삼 : 그렇게 나와야지.
강지영 : 그리고 뜯어가, 그리고 뜯어가..
김영삼 : 그렇지.
강지영 : 지금 당장 뜯어가. 내 집에서 당장 가지고 가. 나중에 청구해. 청구하고 뜯어
가.



- 김영삼 : 뜯어갈라면 뭐 **/2250/ 그래.
- 강지영 : 당장 그리고 600만 원 바로 붙여. 내가 250만 원인지 뭔지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줄 테니까 뜯어가고 청구해, 나한테. 내 돈은 주고. 필요 없으니까.
- 김영삼 : (웃음) 아주 착각하고 있네.
- 강지영 : 착각이고 뭐고 맞잖아요. 지금. 청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근데 6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줬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주고 뜯어가. 필요 없어.
- 김영삼 : 그러니까 그거는,
- 강지영 : 더 들어가고 말고가 없지. 내가 뭘 내가 원하는 거 뭘 한 게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지어놓고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 시간은 그만큼 지체하고. 누가 누구한테 청구를 해, 지금.
- 김영삼 : 그렇게, 돈 받고 싶으면 니도 니가 니도 청구해라.
- 강지영 : 뭘 청구해요?
- 김영삼 : 그러니까 돈 받고 싶으면 청구해라, 나는 그냥..
- 강지영 : 필요 없고 빨리 그냥 주세요.
- 김영삼 : 싫다. 못 준다.
- 강지영 : 뭐 내하고 지금 뭐.
- 김영삼 : 내가 돈 받아야 될 사람이야. 뭘 소리하노 니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도 그런 식으로 있잖아.
- 강지영 : (한숨)
- 김영삼 : 이제 그따구로 니도 살지 마라.
- 강지영 : 누가 지금 인생을 그따위로 살고 있어요, 지금.
- 김영삼 : 참 답답하다.
- 강지영 : 누가 지금 인생 그따위로 살고 있는데요. 내가 뭐 내가 돈을 안 줬어요. 뭘 안 했어요? 뭐 밥 필요하다니까 밥 안 해 줬어. 내가 물 필요하다고 물 안 해 줬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 카는 대로 다 해 줬어. 내가 안 해준 거 뭐 있



어요. 근데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럼 누가 안 한 거예요, 지금.

김영삼 : 그래. 니가 원하는 대로 그래 했잖아. 난 그래,

강지영 : 누가 지금 경우가 없냐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경우가 없어, 지금. 공사도 그
래 해 놔놓고, 마음대로 해 놔놓고 누가 지금 경우가 없는데요. 시간도 그만치
지체했지.

김영삼 : 그러니까,

강지영 : “그러니까”가 아니고 맞잖아요.

김영삼 : 공사,

강지영 : 명확하게 맞는 건 맞는 거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김영삼 : 그래. 공사를 그따위로 해 났으면은 그래 공사 잘하는 사람이 하라고 그랬잖
아, 내가.

강지영 : 그러니까,

김영삼 : 그래, 다른 사람 **/2432/

강지영 : 나는 마무리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니까요. 그리고 돈은 반환하고 내가 알
아서 할게요.

김영삼 : 어여 그거는 못 준다고. /2436/

강지영 : 그거는, 그거는 팔아가지고 알아서 하든지 간에 아니, 공사를 내가 하겠다는데
공사 이 부분을 더 해달라고 추가 요청을 해도 신경질부터 내. 그런 나는 공사
는 나 본 적이 없어, 세상 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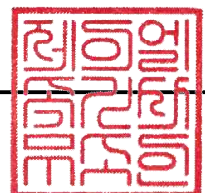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김영삼 :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해라. 니도 니 편한 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하고 니는 니대
로 하면 되잖아.

강지영 : 배짱 챙겨봐야 좋을 거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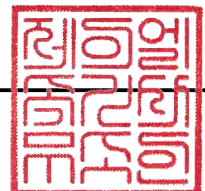
김영삼 : 그래. 뭐 좋을 거 있는지는 **/2457/

강지영 : 나도 어? 가만 안 있고. 그리고 누가 지금 가가지고 먼저 협박을 했고. 네? 정
도껏 해야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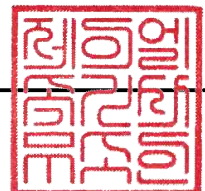
김영삼 : 그러니까. 니,



- 강지영 : 엄마 있다고 지금 가가지고 헐박했어요?
- 김영삼 : 헐박 같은 소리하고 있네.
- 강지영 : 그게 헐박이지.
- 김영삼 : 엄마, 엄마가 큰소리 친 거는 이야기 안 하는 모양이지.
- 강지영 : 엄마 당연히 큰소리 쳤겠지.
- 김영삼 : 그러니까 큰소리치면 안 되지. /2516/
- 강지영 : 아니, 우리 공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공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삼 :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하겠다 했잖아.
- 강지영 : 근데 이제 못 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하지말았어야지.
- 김영삼 : 그러니까 무슨 **/2526/
- 강지영 : 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아,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뜯어가라니까, 당신이 했는 거는?
-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알아서 하라니까.
- 강지영 : 그거 필요 없다니까?
- 김영삼 : 나는 못 하니까,
- 강지영 : 아, 가져가라고!
- 김영삼 : 했던 이야기 자꾸 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러니까,
- 강지영 : 그러니까 했던 얘기하게 하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 김영삼 : 못 가져가고 하니까.
- 강지영 : 왜 못 가져가냐고. 가져가라고.
- 김영삼 : 못 가져가고,
- 강지영 : 돈 그만큼 들었으니까 가져가라니까? 필요 없다니까.
- 김영삼 : 어여, 거기 자재 쓴 거는 있잖아. 그거 가지고 반환이 안 되고 하니까 니가 **/2550/
- 강지영 : 아니, 자재 쓴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내한테 얘기하고 쓴 거 아니잖아.



- 김영삼 : 그러니까, 니가 알아서 하라고.
- 강지영 : 그러니까 내한테 쓴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내한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할 거면 나한테 돈을 주는 게 맞지.
- 김영삼 : 마무리하라 했다, 마무리. 뭐 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못 하니까는.
- 강지영 : 아니,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 지금도. 근데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하냐고.
- 김영삼 : 마무리를, 마무리.
- 강지영 : 마무리 못 하지.
- 김영삼 : 아니, 어차피 하는 건 똑같으니까 마무리만,
- 강지영 : 아니, 아니지.
- 김영삼 : 이쁜 거로, 니 이쁜 거 해라.
- 강지영 : 아니,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라니까요.
- 김영삼 : 뭐 차 가지고?
- 강지영 :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 김영삼 : 아.. 일단은 다 왔네.
(00:26:33 ~ 00:26:46 대화 없음)
- 강지영 :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지.
- 김영삼 : 그래 뭐, 처음부터 뭐..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하지.
- 강지영 : 그러니까.
- 김영삼 : 그러니까 내 말이.
- 강지영 :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 아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나는. 은숙/2703/ 언니한테도 얘기했고,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영삼 : 자꾸 말, 저기 말 돌리지 마라. **/2707/
- 강지영 : 그러니까. 아니, 말 돌린 적도 없고. 나는 똑같아요.
- 김영삼 : 아니, 여봐요.
- 강지영 : 처음부터 그래 얘기했고.
- 김영삼 : 아니, 여기 견적서 딱 박아놓고 금액 박아놓고 원하는 대로.. 말이가 똥이가.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강지영 : 무슨, 아니, 내가 분명 얘기했죠? 대문하고 앞에 집처럼 해가지고 이거 하고 해서 새로 짓는 거까지 해서 900. 새로 짓는 거라고 난 분명 얘기했고. 깔끔하게 새로 짓는 게 낫겠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책임질 거예요. 그랬으면 이 동네 벌써 끝났어. 끝나고도 남았지.

(잠시 침묵)

강지영 : 왜 마음대로 공사를 해놓고 얼마 더 들었으니까 돈을 달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김영삼 : 그래, 뭐 좋은 건 하고 싶고. 그자? 원래 그런 거야.

강지영 : 아니, 나는 돈은 더 추가 돼도 내가,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했으면 나는 해요.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김영삼 : 그러이 뭐, 좋은 거, 좋은 거 쳐다보니까 자재도 비싼 거 하고 싶겠지. 안에 뭐 전기도 좋은 거로 하고 응? 다 그렇게 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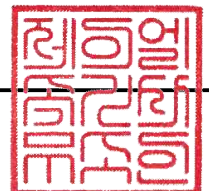
강지영 : 그러니까 나는 돈 너무 싸고 이런 것도 안 필요하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는 어? 돈 여기 맞춰주고 얼마 들어요. 견적,

김영삼 : 어여.. 그런 소리 안 했거든. 처음부터 돈 좀 쓰고 찢찢 매고 했으마 그런데 **/2830/

강지영 : 내가 은숙이 언니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돈 준비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1,000만 원 든다고 해도 내가 알았다 그랬죠. 처음에 700 했어요. 맞잖아요. 근데 1,000만 원 했을 때 내가 알았다고. 900만 원 했을 때 알았다고.

김영삼 : 이.. 그제,

강지영 : 내가 공사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공사를 시작했을 때 내가 어? 그 앞전에도 그 뒤에도 얘기했어. 내가 공사가 시작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내가 추가 되면은 더 추가 되는 비용에 대해서 난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했어. 내한테 언제 뭐 물어봤어요? 이게 더 추가 되는데 이게 얼마가 드는데 이게 어떻



다, 얘기했어요, 나한테? 얘기했었으면 달라졌겠지.

김영삼 :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 청구서하고 내가 어? 경비에 들어가는 거 영수증도 **/2920/ 자재 들어갔는 거 **

강지영 :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내한테 뭐를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나중에 그거 청구만 딱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뭐든 내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본인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나중에 내가 청구할게, 돈 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김영삼 : 아니, 근데 뭐 좋은 거를 하고 싶고 그래, 그 뭐 좋은 **/2946/

강지영 : 아니, 좋은 거 하는데 내가 좋은 거를 하면 그 내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걸 하든 나쁜 걸 하든 내한테 안 물어봤잖아.

김영삼 : 야.. 아니, 아니.

강지영 : 아니, 내한테 물어봐야지, 내 말은.

김영삼 : 아니, 머리에 뭐 돈 적게 들고 이쁘게 하는 게 물 좋고 정자 좋은 게 어디 있노. 맞잖아.

강지영 : 아니, 아니. 제가 그래서 “짜구려를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한테 뭐 가져와가지고 “이거 싸고 이걸 비싼데 어떤 거 할래?”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본인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냥 내 자재 이래 들었으니까 돈 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뭘 사장님은 어디 가서도 그래 합니까, 일음?

김영삼 : 나는 도면 없, /3028/

강지영 : 누가 그런 식, 누가 그런 식으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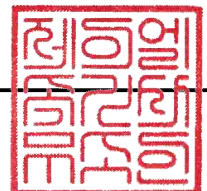
김영삼 : 나는, 나는 도면 없는 거/3030/ 안 하지.

강지영 : 누가 그런 식으로 해요.

김영삼 : 나는 한 푼을 아껴주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걸 뭐 견어보니 그게 아니네.

강지영 : (한숨)

김영삼 : 자재도 하면 내가 청구서 보면 알지만은 자재도 다른 데보다 다 싸게도 하고



했어. 한번 나중에 내가 보내줄게. 자재 샀는 집에 그대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보내줄게.

강지영 : 자재고 뭐고 지금, 지금 제가 진짜 너무 열 받거든요, 진짜? 진짜 너무 열 받거든요?

김영삼 : 그거 니 열 받을 것도 없고.

강지영 : “열 받을 것도 없고”가 아니라 지금 열 받게 했고, 네?

김영삼 : 거기 니가 디자인을,

강지영 : 공사를 이런 식으로 자꾸 있잖아. 그리고 거울도 그래. 거울도 누가 그거 해달라 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미는 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김영삼 : 그거를 세면대 위에 아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세면대 위에는 거울을 넣고, 만약에 슬라이드가 필요하다면 화장실 안에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거 안에 그거 휴지도 넣고 하는 거지. 그.. 그거 검은 거가,

강지영 : 요즘에 슬라이드 안에 거울이 다 붙어 있어요.

김영삼 : 붙어 있으면 앞에.. 뭐 세면대 위에 걸치면 대가리 박, 머리 박잖아.

강지영 : 아니, 세면대 위에 그거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은 왜 있는데요, 도대체?

김영삼 : 세면대 위에 그거를 붙이고,

강지영 : 누가 세면대 위에 해달라고 했어, 그거를.

김영삼 : 안에 수납을, 안에 수납장을 별도로 설치해도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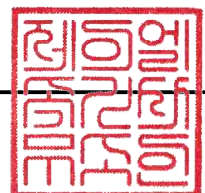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강지영 : 아니지. 앞에 요즘에는 다 그래 돼 있다고, 슬라이드로. 거울 다 붙어가지고. 손 씻는 데도 다 그래 돼 있지, 어디 그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싹 무시했어, 완전. 그냥 붙여놨어, 거울을.

김영삼 : 그래, 거울 붙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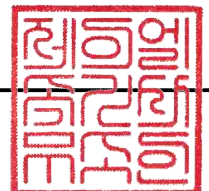
강지영 :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 필요하면 더 달면 되는 기고.

강지영 : 필요하면 더 다는 게 아니고.



- 김영삼 : 그러니까 자꾸 그래, 자꾸 그래 트집 잡지 말고.
- 강지영 : 한 번에, 아니지. 이런 상, 이런 게 다 공사인데. 포함이잖아요, 포함.
- 김영삼 : (한숨) 그래. 뭐 잘하는 사람이 해라. 아이고, 피곤하다. 니하고 얘기해도 입 아
프고 있잖아. 내 또 여기 다 왔네.
- 강지영 : 누가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 김영삼 : 그래 뭐 공사 뭐,
- 강지영 : 내가 업체 아무런, 아무리 있잖아요, 많은데 해봤어도 돈이 더 들면 더 든다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없지만은 처음부터 해달라고 하
는 대로 완전 방향하고 완전 정반대로 해가지고. 어?
- 김영삼 : 그래.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1,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잖아. 이게 나는 이렇
게 힘든지 몰랐네. 그자?
- 강지영 : 아니,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면은 없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 김영삼 :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공사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
- 강지영 : 그러니까. 없으면은, 자신이 없었으면은 처음부터 얘기했으면은 내 소품하고
다 그거 하는 새, 그 집에서 했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 김영삼 : 그래 뭐.. 마무리를, 마무리를 잘 지어라.
- 강지영 : 마무리고 뭐고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 김영삼 : 마무리를 **/3326/ 하고. 나도 그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 강지영 : 처음부터 그러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했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벌써 끝냈지, 초과일 전에. 돈도 다 줬고.
- 김영삼 :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뭐할라꼬/3342/ 내가 그거 들
어갔는가 모르겠네. 뭐 씌였는 모양이다.
- 강지영 : (한숨)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잠시 침묵)
- 김영삼 : (한숨) 그래, 뭐 지붕이고 뭐고 이쁘게 하, 그거 견적 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



고 뭐 얼마나 이쁘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강지영 : 지금 있는 데서 어떻게 이쁘게 해요.

김영삼 : 아니, 뭐 지금 뭐 지붕 새로 위에 얹는다며.

강지영 : 아니, 지금 있는 데서 어떻게 예쁘게 하냐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다 아닌데. 이쁘게가 이미 안 됐는데. 어떻게 이쁘게 하냐고, 여기서. 다 해놓고. 어떻게 이쁘게 하냐고요.

김영삼 : 아니, 뭐 대문도 이쁜 거 달고,

강지영 :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

김영삼 : 지붕도 이쁘게 달고. 뭐 그러면 되지. 그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 아이가.

강지영 : (한숨) 그러니까 다 가져가시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쁘게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원하는 게 돼. 지금 벌써 해놨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다 해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노. 말이 앞뒤에 안 맞잖아요, 지금.

김영삼 : 그러니까 화장실을 그래 얼마나 이쁘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해 봐라. 이쁘게,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뭐 그러면,

강지영 : (한숨) 그러니까.

김영삼 : 뭐 그림을, 그림을 함 그려봐라.

강지영 : 뭐라고요?

김영삼 : 그림을 한번,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하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강지영 :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니,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김영삼 : 그래, 원하는 그림이 **/3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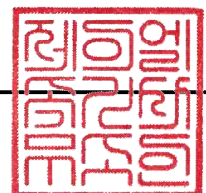
강지영 : 나는 지금 새로, 새로 짓는 걸로 나는 하겠다고 했다니까? 그러면 그때 디자인을 얘기했겠지, 그 사람하고.

김영삼 : 디자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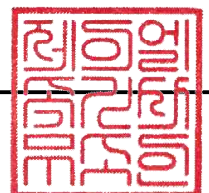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강지영 :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짓는 사람하고 얘기했지, 당연히.

김영삼 : (한숨)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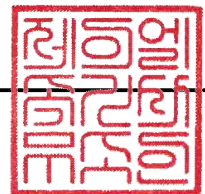
강지영 : 아니,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 김영삼 : 그거 뭐 가져다 갖다 붙이면 되지, 뭐 벽에다. 뭐 디자인 찾으면 가져다가 벽에다 그 위에 붙이면,
- 강지영 : 아니죠. 요즘에 그렇게 누가 그렇게 공사합니까. 500만 원짜리도 그래 요즘에 공사 안 합니다.
- 김영삼 : **/3532/
- 강지영 : 다 얘기하고 일단은 모양부터 시작해갖고 어디 들어가는 자재까지 다 얘기해, 다 얘기해. 근데 내가 그런 거까지도 처음부터 그냥 그래 해가지고 아, 진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은.
(잠시 침묵)
- 김영삼 : (한숨)
- 강지영 : 판넬도 마찬가지로요. 요즘에는 다 모양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로 할래요.
(00:36:03 ~ 00:36:14 대화 없음)
- 김영삼 : 그러니까 뭐 벽들 색깔이 있는 게 뭐 그게 정해져 있다 했잖아.
- 강지영 : 뭐라고요?
- 김영삼 : 벽들 색깔 정해져 있었잖아, 검은색하고.
- 강지영 : (한숨) 언제 정해져있다 했어요. 나 들은 적도 없다, 지금 벽들 색깔은. 벽들은 내가 갖다 오니까 그 많이 발라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구만.
(00:36:30 ~ 00:36:43 대화 없음)
- 김영삼 : 일단 그 뭐 생각을 잘 해보, 해보고 자꾸 이렇게 뭐 막말하고 그 뭐 다 좋고. 근데 뭐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뭐 감정이 격해가 어떤 소리도 나도 안 들리고 뭐 니도 안 들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강지영 :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열이 너무 받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벌써 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쌓여있는 상태고. 어? 그리고 오늘 아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협박도 아니고 무슨 공사면 뭐, 뭐? 뭐? 법으로 건다고? 공사 한번 해보라고?



- 김영삼 : 말귀를 똑바로 알아듣고 해야지. **/3725/ 그러니까 응? 이게 자꾸 있잖아. 이거 어떻게 자꾸 이게 이간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말 그.. 토시빠져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 강지영 : 그러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때 엄마한테 갔을 때도 뭐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나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 김영삼 : 그래. 그러니까 가가 그러니까 그거가/3751/ 물론 엄마하고 내하고 뭐, 뭐가 이 아무도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러는가 뭐 보면 뭐 으르렁거리고 그러는 거 같은데. 뭐 사실상 뭐 지금 들어가서 지금 하면 이렇게 열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대화해봤자 자꾸 서로 이제 막말만 오가니까 그 머리 좀 식혀가지고 이야기해.
- 강지영 : 머리를 어떻게 식혀요. 지금 화장실을 그대로 해놓고.
- 김영삼 : 그러니까 열을 식혀가,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답 나오나.
- 강지영 : 지금 그래가지고 어? 언제까지 시간을 끌고 언제까지 그걸 할라고. 나는 지금 안 그래도 그 기한도 지금 열 받아 죽겠는 상태인데. 도대체 공사를 하루하고 5일 안 오고 이런 공사 나는 처음 봤고. 붙어서 바짝 다 하고 가지.
- 김영삼 : 근데 뭐 일단 다 이거 하고. 그, 그래서 내가 이거 뭐,
- 강지영 : 뭐 처음에 그래 규실/3852/ 아저씨 뭐 어? 운전 뭐 차 때문에 뭐 어? 계속 그거, 그거 가고. 그다음에는 무슨 뭐 스프링 공장인가 그거하고. 뭐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 빨리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하지도 않고.
- 김영삼 : 아니, 그러니까 뭐 열 식혀가 서로 이렇게 자꾸 저 뭐,
- 강지영 : 아니, 아실 건 아셔야지. 내가 왜 열이 받는지.
- 김영삼 :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해봤자 서로 뭐 목만 아프지. 뭐, 결론이 안, 결론이 안 나오잖아.
- 강지영 : (한숨)
- 김영삼 : 결론이 안 나오니까.



(00:39:28 ~ 00:39:40 대화 없음)

강지영 : 일단은 내가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오늘 막 열 받아가지고 아까 진짜 막 완전히 열이 끝까지 올라가지고 막말하고 했는 거는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일이잖아요.

김영삼 : 그래 뭐 일이고 나는 하여튼 내가 일은 들어오지만 어제 갔다 그러지만 /4009/ 내가 일단은 뭐 청구서보다 내가 이거 경비 들어간 거는 적어서 일단 내가 보내놓으니까 그 뒤에 이야기해라.

강지영 : 뭐라고요?

김영삼 : 경비 들어가는 거 내가 올려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가, 내가 오늘은 뭐 안 되고. 내일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일단은 보고 이야기해라. 내가 이 사, 이 사람이 왜 이런가. 그걸 한번 그 이제 **/4034/ 있는 그대로 내가 내역서 해가지고,

강지영 : 근데 일단은 있는 거는 없는 거든 내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역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김영삼 : 내가, 내 그런 게 중요한 게,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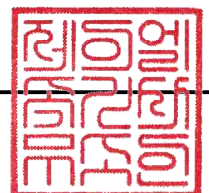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강지영 : 나는 지금 그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언제까지 끝내겠다 말이 없어.

김영삼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까지 그거.. 아마 그 초파일 오기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게 이제 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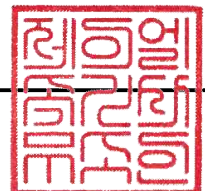
강지영 : 아니지.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튼튼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보니까 안 될 거 같다, 그때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초파일 끝나고 바로 막 달려들어서 해야지.

김영삼 : 그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비오고 했고.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다음에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자고.

강지영 : 그게 들어온 견적이 그게 어떻게 내가 확인을 해요.



- 김영삼 : 아니, 견적이 아니고 이거는 뭐 거기 전화번호도 다 있으니까 전화하면 되고. 내역서 이제 받은 거 그대로 내역서 거래명세표 그대로 보내 줄 모양이끼네.
- 강지영 : 그래서 뭐 어찌자고요, 그거를. 어찌라고요 그래서.
- 김영삼 :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 보고 이야기하라고. ** 말고. 그게 자꾸 이게 자꾸 금액이 자꾸 이 두마디/4145/하면 할수록 있잖아. 금액이 자꾸 올라가지니까.
- 강지영 : 아니,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그랬잖아요.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어? 하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또 손대고 또 손대고 하면 돈이 더 드니까. 한 번 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난 분명히 그래 얘기했어요.
- 김영삼 :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그러면,
- 강지영 : 그러니까 근데 뭐 안 오고 공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 김영삼 : 그래 아무런 뭐 나는, 나도 다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못 온 거고. 그때 사람을 보내갖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 강지영 : (한숨)
- 김영삼 : 뭐 사람만 보내가지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게 있고 그냥 해야 될 일이 있고.
- 강지영 : 그러니까 적어도 늦어졌으면 그만큼 늦어졌으면은 오셔가지고 바짝 해서 일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내 말은.
- 김영삼 : 그러니까 지금 일은, 안에 일은 다 끝났잖아. 지금 안에 이제 칸막이만 들어가면 되잖아. 칸막이 안에 거보내주는 거 봤잖아. 칸막이만 그거 주문을 하고 주문 들어간 상태로 칸막이는 이래 했다. 내가 하도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금액을 내가 이리로 준 거야. 나중에 그거 보면 내 그 물론 뭐 계산서를 다 내, 뭐 물론 같이 붙이지마는. 자꾸 이렇게 돈이 만이 들어가니까. (한숨) 참, 답답하다니까, 답답해.
- 강지영 :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공사를 바짝 붙여가지고 내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돈이 이렇게 들어간, 얼마 정도 추가한다 하면서. 지금 이거 했는 거보다 이거 어느 정도 추가돼, 이래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지. 근데 공사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난 열 받는 거야.

김영삼 : 아니,

강지영 : 같이 끝내야 되는데.

김영삼 : 안에는, 안에는 다 됐잖아. 다 됐고. 안에는,

강지영 : 안에도 안 됐다니까 거울 그거 아니라니까. 슬라이드로 해달라고, 슬라이드로.

김영삼 : **/4324/ 야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붙이면 되는 일이야. 그거는 문제가,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공사, 공사 다 하고 나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4335/

강지영 : (한숨) 그리고 안에 냄새도 그대로 나오, 지금.

김영삼 : 냄새가 나?

강지영 : 그거 변기에 붙이면 괜찮다 하더라도 안에 냄새 그, 그 냄새가 그대로 난다니 까.

김영삼 : 물을 한번 다 내려야 된다. 물을 한번 다 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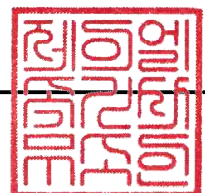
강지영 : 냄새가 지금 심해, 안에.

김영삼 : 아니, 물을 다 내려야 돼. 안에 없으니까 물을 한번 다 내려, 물이 안에 없으니까 물이 다 갖다 놔야 된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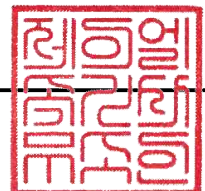
강지영 : 냄새가 계속 올라오니까 막 역, 막.. 그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니야. (한숨)

김영삼 : 요즘에는 그 변기에서 나는 거는 변기에 물이 없어서 그런 거고. 물 한번 다 내려 보면 돼. 지금 물 다 틀어놨으니까 물 다 내려 보면 된다니까. 물 내리면 물이 그 냄새 안 올라오고 하수도에 있는 거는 그 트랩, 트랩이, 그 트랩이 요즘 다 막아주기 때문에 물, 안에 물이 없어서 그렇게 **/4420/

강지영 : 그래. 화장실도 완전 냄새가 완전 그 뭐 변기만 달면 괜찮다 했는데 그대로 냄새가 완전 막 계속 나지.



- 김영삼 : 안에 물이, 물이 안 들어가면은, 물이 간혀야 되는데 물이 안 간히고 **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고.
- 강지영 :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니까.. 적어도 최소한은 어? 이 시간은 많이 지났으면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짝 붙어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이거 언제까지 늘어놓을 거예요. 서로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 김영삼 : 보고 마 내일 해도 되고. 하여튼 내가 내일 하여튼 뭐 내가 내일은 또 내가 쉬는 날이니까 내일 뽑아가지고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자꾸 서로 성질 급한 사람끼리 자꾸 붙어봤자 자꾸 머리만 아프지. 하여튼 내일, 내일 근무 어예 되는데?
- 강지영 : 내 증변이요.
- 김영삼 : 증변이라고.
- 강지영 : 아, 말변인가 모르겠다.
- 김영삼 : 말변이면은 내가,
- 강지영 : (한숨)
- 김영삼 : 들어가기 전에 갔다 가야 된다. 하여튼 내가 내일, 일단 내일 내가 이런 건 이야기하자.
- 강지영 : 일단은 알겠고. 아무튼 막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공사는 이거 지체하고 이런 거 나 진짜 너무 열 받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맞잖아요.
- 김영삼 : 나도, 나도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이렇고 뭐 일단은,
- 강지영 :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은 내가 봐드렸잖아요.
- 김영삼 : 그러니까,
- 강지영 : 초과일도 원래는 그전에 했어야지.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 김영삼 : 그러니까 초과일날 그때 뭐 변기를 심으려 하다가 그때 안 심었잖아. 그래 그때 내가,
- 강지영 :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가지고 초과일 못 했고, 그럼 비가 이틀 왔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라도 바짝 붙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뭐하



는 거예요, 그때 하루 하고 또 아예 안 와. 며칠 짜예요, 지금.

김영삼 :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안에 그.. 붙이고 같고 타일 붙이고 그 변기 놓고 그 바닥 그 옆에 천장하고 앞에 세맨하고 세맨했다니까. 그때 뭐 **/4626/

강지영 : 그리고 세맨도 그거 좀 더 해 달라 하니까 또 성질내고.

김영삼 : 그거는 튀어나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안 되고, 그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어. 그거 옆으로 그 각을 재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거는, 그거는 끝에 가서 다 해놓고 마무리해도 되니까 어차피 이게 세맨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그런 거 이야기했어. 그거는 이야기 다 했고. 그리고 뭐 자꾸 이렇게 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좀 제발 좀 입 좀 대지 말라고 했잖아. 다 해놓고 안 된 부분을 나중에 내가 “자, 다 됐습니다.” 카면,

강지영 : 아니,

김영삼 :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갖다 주면 되잖아.

강지영 : 아니죠. 다 하면, 다 하면 이미 끝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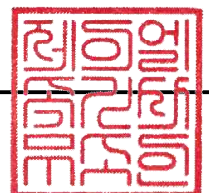
김영삼 : 아니, 모자란 부분이 있는가, 이게 그 아까, 아까 뭐 옆에 뭐 안 된 거 그거는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직 세맨 남아있으니까 마무리할 때 와서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강지영 : 그카고. 내 처음부터도 지금 그냥 무조건 내가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도 빨리 화장실 공사를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벌려놓을 건데, 집에. 맞잖아요. 아니,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우리도 지금 이거를 계속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기 싫게.

김영삼 : 그래 문도 달고 뭐 그거는 뭐 이미 다 맞춰놨으니까 그냥 달고, 갖다 달면 되는 기고. 그건 맨 마지막에 갖다 넣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안에 그 ** 걸거야 되니까.

강지영 : (한숨)

김영삼 : 안에 그 항상 문은 맨 마지막에 다는 거야.



강지영 :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어져 지금 두 달도, 두 달 걸려 이게 두 달.
 김영삼 : (한숨) 하여튼 내일 저 내일 내가 오후에 내가 전화를 할게.
 강지영 : (한숨)
 김영삼 : 아 이거 뭐 자꾸 열을 내봤자 이거 뭐 입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지.
 강지영 : 열이 나니까 그러지, 열이 나니까.
 김영삼 : 그러니까. 나도 열나고 그렇지. 뭐 같이 열 나는 거야 뭐 그 뭐, 이렇게 화가 올라오면 열이 나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좀 삭여가지고 내일 보고 오후에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내가.
 강지영 : (한숨)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삼 : 응.
 강지영 : 네.

- 끝 -

사업자등록번호	890-66-00530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에이치비즈니스파크 C동 1층 130호
업 태	서 비 스	종 목	속기업, 녹취업
대표번호	010-4569-3660	속기사자격번호	17-G1-RT0017

